

선비정신과 CEO 리더십

설 봉 식*

<목 차>

- I. 지금은 CEO 시대
- II. 선비정신에 관한 일반적 이해
- III. 선비정신과 CEO 리더십
 - 1. 선비정신과 CEO 정신
 - 2. 실사구시 혁명
 - 3. 허생의 꿈
 - 3. 리엔지니어링 사례
- V. 선비정신과 CEO의 윤리경영
 - 1. 선비의 명분론
 - 2. 어느 선비의 죽음
- VI. 맺는말

*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Univ. of South Carolina 유통연구소
펠로우/odang@cau.ac.kr

I. 지금은 CEO 시대

지금은 CEO 시대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체제는 자본가(주주 및 기업주)와 노동자 및 CEO 등 세 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CEO, 그들 최고경영자그룹은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CEO의 리더십과 그들의 행위 특성 및 규범에 관해 관심을 가질 만 하다.

그런데 2006년 5월 초에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는 구직자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상형의 CEO에 관하여 의식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디 형의 CEO를 제 1위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디아의 세계적인 지도자, 간디와 같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로 직원들을 지원하는 데 그 특성을 갖춘 CEO를 보다 선호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CEO에 대한 이상형 내지는 어떤 기대나 바람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어서 제 2위로는 포드 형 CEO로 보다 분석적이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며 나아가서 업무시스템을 중시하는 데 손을 들어 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제 3위는 빌게이츠 형 CEO로 도전과 경쟁을 즐기며, 미래지향적이고 성과를 중시하는 데 관심을 두고 마지막으로 제 4위로는 처칠 형 CEO로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며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활동 형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 그 자체보다도 “왜 우리 선조들의 규범적 행위 그 특유의 CEO 유형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에 대하여 한번 짚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다행이도 최근에 CEO 100인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이 이율곡이 남긴 말을 그들 스스로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CEO가 제일 많아 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율곡 선생은 “먼저 뜻을 크게 세워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많은 기업의 CEO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뜻 깊은 한국산학경영학회 총회에서는 이이의 명언과 같이, 면면히 이어 온 선비정신을 통한 기업가 행위의 규범을 정립해보려고 한다.

“과연 선비, 그들은 누구인가?” 물론 이런 선비들이 고루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도덕적 규범, 그리고 덕행 등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CEO의 리더십, 그 행위 규범을 정립할 수는 없는지?” 등에 관해 조심스럽게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선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선비정신과 기업가정신, 선비정신과 실사구시, 선비정신과 기업윤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단지 오늘의 기초발표는 그 자체가 많은 역사학자들의 시각이나 차원 높은 접근 방식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선비정신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감히 숭고한 선비정신에 토대를 둔 CEO의 행위규범에 관한 논리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찾고 싶다.

II. 선비정신에 관한 일반적 이해

선비, 그들은 누구인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선비란 근대화 사회 이전에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룬 지식인들을 두고 널리 쓰인 말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르지만 선비하면, 흔히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두고 지칭하고 또 그들의 행위 및 규범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례가 많다.

일찍이 연암 박지원은 선비 사(士)로써 형용하여 그 때 그 시절의 지식인을 통털어 선비라 했다. 그는 그의 저술 “양반전”에서 “양반이란 사족(士族)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1) 과연 그들 선비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선비라는 계층이 있었다. 책을 보는 사람, 혹은 글을 짓는 사람, 또 혹은 학식은 있되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그 때의 지식인들을 통칭해 이르는 말이다.” 2)

그렇다면 그들 선비의 행위의 규범과 일반적 특성은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선비 특히 조선시대의 선비에 대한 시각이 어떤 선입관 때문에 그리 좋지 않다. 흔히 그들 선비의 행위특성을 두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고루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지나친 명분이나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약하기 짝이 없다는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반듯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작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역설적으로는 실사구시와 같은 선비다운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참 삶을 살아 왔다고 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선비, 그들의 숭고한 선비정신에 관하여 새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니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속에서 비록 급속한 개발과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으나 그 경제의 안정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숭고한 선비정신과 같은 기업가행위의 규범 내지는 은고지신의 참 덕목을 갖춘 많은 CEO그룹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비정신은 선비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시대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비정신은 그들 선비의 바른 몸가짐과 옳은 행위 등에서 출발된다. “선비의 몸가짐 즉, 조신(操身)은 그들이 거동하면 반드시 예(禮)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면 먼저 의(義)에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살피는 데 있었다.” 3) 정옥자 교수의 선비예찬은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한다. “하늘아래 두려운 것은 오직 지조와 백성의 소리였던 그들, 새벽에 일어나 손수 이불을 개고 독서와 사색 속에서도 실용기술을 익혔던 그들, 저녁시간 친히 했던 자녀교육에서부터 유산분배에 이르기까지 남녀차별이 없던 그들, 눈길 닿는 곳 무한하지만 일상에선 고정관념 없이 알뜰했던 참사랑의 초상 내 안에 흐르는 올곧은 마음의 원천이 있다.” 4)

둘째, 선비정신은 학문연구와 그 실천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학행(學行)의 일치라고 해도 좋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라면 누구나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대우를 받았다. 그 때 선비들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비판받고 또 매도당했던 것이다. “교원명색(巧言命色)이라고 했던가? 조선시대의 선비사회에서는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교묘한 말로 좋은 얼굴색을 지어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짓을 크게 매도했던 것이다.” 5) 이이 이율곡은 선비란 익힌 학문과 닦은 덕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실행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의 저술 동호문답(東湖問答)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뜻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요--.” 그리고 허균도 “선비가 벼슬을 구하려는 것은 그 도(道)를 행하려 함이요, 영리를 탐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선비정신은 학덕(學德)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본데서 그 의의를 찾고 있으며 반면에 벼슬에 나아가 영리를 탐하는 것은 선비답지 못하다고 했던 것이다. 6)

셋째, 선비정신은 투철한 이타심(利他心)으로 형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기후인(薄己厚人)이라 했던가? 선비는 남에게는 후하고 자신에게는 청빈하고 검약한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정옥자 교수의 논의는 평이하다. “이 세상에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은 여유란 있을 수 없으므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렴정신이 청백리의 바탕이다. 청렴정신을 관직생활에서 실천하면 청백리가 되는 것이다.” 7) 차제에 저 유명한 황희 정승과 같은 선비와 그 후예들의 “아름다운 빈곤(noble poverty)”을 한번 상기해 보자. 참으로 그들은 많은 업적을 쌓고 유능하면서도 돈이 없었던 정치가들, 그들은 청렴성 때문에 지금도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 모른다.

넷째, 선비정신은 의리와 명분을 생명보다 중시하는데 있을 것이다. 논어에도 “선비는 위급을 당하면 목숨을 바치고, 득(得)을 보면 의(義)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지 않은가! 그래서 허균은 선비를 두고 된 사람, 혹은 채워진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선비관은 이렇다. “군자(君子)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채워 뒷사람에게 남기는 것이다.” 8)

이와 같은 선비정신에 관한 천관우의 연구는 우리의 이해를 크게 돕고 있다. 7) “손에 돈을 쥐는 법이 없고, 쌀값을 물어보는 일이 없어, 어찌다가는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소나기에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더워도 버선을 벗지 않고, 밥 먹는데 상투바람으로 잇는 법이 없어, 가끔은 발가락사이에 때도 후벼 짚어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용기를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정치상 발언은 때로는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발언을 뒤이어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설가 이용범의 선비에찬론은 남다르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의 참스승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닦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줄 나침반 하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우리에게서 참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다. 바로 선비들이다.

옛 고전 속의 선비들이 묵은 먼지를 털고 나와 우리에게 호령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9)

- 1) 박지원, 양반전-이민수 역주, 범우사, 1991, p. 29.
- 2) 정광호, 선비-소신과 처신의 삶, 놀와, 2003, p. 2.
- 3) 이장희 전계서, pp.216.
- 4) 정옥자, 우리선비, 현암사, 2002, 첫 머리에
- 5) 상계서, p. 29.
- 6) 이장희, 전계서, pp. 220-224.
- 7) 천관우, “이조오백년과 선비,”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1974, pp. 250-251.
- 8) 이용범, 인생의 참스승 선비, 도서출판 바움, 2004, p. 7.
- 9) 상계서, 뒤표지.

III. 선비정신과 CEO 리더십

1. 선비정신과 CEO 정신

일찍이 슈페터(J. Shumpeter)는 자본주의 경제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과정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 발전의 원동력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인가? 슈페터는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들이 갖추고 있는 혁신의 능력과 투자의욕 및 새 시장 개척과 신제품이나 새 기술의 개발, 새 경영의 틀 마련” 등으로 열거하였다.

이와 같은 슈페터의 기업가정신은 오늘날의 경제체제의 특성으로 보아 CEO정신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CEO는 자본가나 기업주와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가 아닌가? 손자병법에 따르면, 10) 국가는 곧 전쟁이라고 보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라의 임금과 장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장수가 임금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군대를 지휘할 때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성장을 위한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손자의 생각이다. 물론 왕과 장수와의 관계는 프로야구 구단주와 감독 사이처럼 그리고 자본가 및 기업주와 CEO 사이와 같다. 우리는 바람직한 CEO정신, 그 리더십의 발휘에 대한 벽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CEO정신은 선비와 같은 그들 행위의 전통적 미덕으로부터 벤치마킹할 수는 없는지? 오늘의 발표에서는 논의의 실마리와 그 해법을 선비정신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낡은 사상 때문에 근대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외세의 침탈까지 받았다고 생각해 왔다. 맞는 말이다. 선비는 천하고도 천한 공업이나 상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더디게 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행위 특성은 그만 문약과 산업발전의 지체를 가져왔다는데서 지금도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 그들 선비들이 학문에만 종사하고 농,공,상을 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산업능력의 저하를 가져왔고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천시하는 풍토 조성 또한 그들을 문약(文弱)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11)

그러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이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 같다. 일찍이 이이 이율곡은 그의 저술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지적하기를 “선비는 세상에 태어난 만큼 반드시 경제에다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은가! 12) 이이가 말한 대로 “경제에 마음을 둔다.”는 의미는 곧 경제제민(經世劑民)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의미는 “세상을 다스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는 일이다.”라고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이가 말한 선비정신은 언제나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는 왕이든 신하든 선비 형의 지도자 스스로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 즉, 안민(安民)에 힘을 쏟으라고 했다. 그가 논의한 안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3) 첫째, 지

도자인 왕은 여러 신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성심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둘째, 공안을 고쳐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제거할 것이며, 셋째, 노비를 뽑아 올리는 법을 고쳐 천민의 고통을 구제할 것, 다섯째, 군정을 개혁하여 내외의 방비를 굳게 하는 것 등으로 정리했다.

다 바와 같이 조선시대는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의 선비들은 오늘날의 민간기업과 같은 미시 경제적 과제보다는 오히려 국가 및 지방경제나 민생문제와 같은 거시 경제적 과제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벼슬을 한 선비들은 오늘날과 같은 민간기업의 CEO와는 달리 고급 행정공무원과 같이 정부기관의 CEO의 행위특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술 “목민심서”에서, 조선시대의 정부기관에 봉직하고 있던 CEO, 그들 선비의 행위규범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다산은 스물 둘 약관의 나이로 출세하여 옥당(玉堂)에 들어 정조임금과 경세제민을 도모하고 암행어사로 목민의 현장을 두루 살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40세에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간 유배생활을 하고, 그 후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낙향하여 재야 선비로 남아 저술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저술한 서적이 한 수레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활발한 저술활동은 미루어 짐작이 갈만 하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그의 많은 저술 중 우리에게 남겨진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서 목자(牧者)란 벼슬을 하는 선비를 지칭하고 있으며 심서의 의미는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제목을 지었다는 것이다. 목민심서 서문 중 한 대목은 이렇게 쓰였다고 한다. “요즈음 지방 장관이란 자들은 오직 사리를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피폐하여 서로 떠돌다가 굶어죽은 시체가 구렁텅이에 가득한데도, 지방 장관이란 자들은 한창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¹⁴⁾

그의 논의는 선비란 수신(修身)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라고 했다. 그리고 목민은 자신을 바로한 데 있다고 했다. 선비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올바른 목민관은 곧 백성을 사랑하는데서 그 직분을 다 한다는 것이다. 그의 저술 원목(原牧)에서도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나 백성은 곡식과 옷과 신발을 염출해서 목민관을 섬긴다. 그리고 말과 안장과 구종을 내어 그를 맞아오고 보내 드리고 한다. 또 혹은 피땀과 정성을 다해 그를 살찌게도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¹⁵⁾

울곡은 조선시대에 널리 팽배된 무사안일 풍조를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¹⁶⁾“왕이 자질이 총명하고 꼭 하려고 하면 훌륭한 정치를 이룰 만 한데도 도무지 뜻이 없어 보인다. --- 지도자의 마음이 중요하니 세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왕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때 조정의

신하들도 왕을 본받아서인지 모르지만 무엇 하나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매사를 편의 위주로 적당히 해나가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고 한다.

예컨대 대사헌이 된 노수진만 하더라도 인망 있고 노모를 봉양하는 데 극진하여 효자라 일컬어졌지만 그저 무사안일만을 추구했다. 17) 그리하여 우의정 노수진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도 노진은 그를 보고 “별나게 보통사람보다 다르게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무엇을 특출하게 하려다가는 공연히 다칠 우려만 있으니 그럭저럭 일 처리나 하며 지내라는 충고였던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CEO가 누구냐에 따라 그들 기업의 경영성과가 적어도 15%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처럼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문화의 특성으로 볼 때 CEO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도 15%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CEO정신과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0) Khoo Kheng-Hor, *Sun Tzu & Management*, Pelanduk, Publications, 1992. pp.3-24.
- 11) 조선 시대에는 선비들 중에 글을 몰라 과거(문과)에 나갈 수도 없고 궁술을 몰라 과거(무과)에 나갈 수 없어 무위도식하는 자도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장희, 전계서, p. 234.
- 12) 정광호, 전계서, p. 3.
- 13) 이종호, *율곡-인간과 사상*, 지식산업사, 1994, pp. 194-195.
- 14) 고승제, *다산을 찾아서*, 중앙일보사, 1995, p. 331.
- 15) 정광호, 전계서, p. 280.
- 16) 남만성 역, 정약용, *정수 목민심서*, 삼중사, 1993, pp.
- 17) 이종호, 전계서, pp.185-186.

2. 실사구시 혁명

조선시대에는 전통적으로 농업은 본업(本業)이지만 공업과 상업은 말업(末業)이라는 사상이 널리 지배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문벌을 숭상했던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선비라면 비록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비생산적인 규범에 얽매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700년대 이후 싹이 튼 실학사상은 이와 같은 사농공상 사상을 크게 질타했다. 실학사상은 첫째, 전근대의식에 대립되는 근대의식과 둘째, 몰민족주의에 대립되는 민족의식 등 두 가지의 새로운 의식과 자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 같

다. 18)

실학은 세 학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첫째,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이다. 18세기 전반에 활동하던 반계나 성호 등 여러 학자들은 토지제도나 행정기구 및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둘째, 이용후생파(利用厚生派)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상공업에 있어서 유통과 생산기술 내지는 일반기술의 혁신을 주장했다. 그리고 셋째,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이다. 19세기 이후 추사 김정희에 이르러 이룩된 학문체계로서 경서와 금석 및 고전의 고증을 추구했다. 이 학파는 실학의 완성을 이룬 학파로서 “주체를 평정하여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사실에 구하고, 사실에 맞는가를 고증하여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라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학혁명이 일어난 그 때 그 시절에 실학자 유수환(柳壽桓)은 백성이 가난한 이유는 그 어느 것보다도 사농공상의 직업적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농공상이라는 일반 직업인은 계급으로 보아 평등한 것이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칠 수도 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유수환도 농업을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농업은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이며, 그런 의미에서 농업은 본업(本業)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공업이나 상업은 말업(末業)으로 보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공업이나 상업은 스스로 노력하여 유무를 유통시키고 재화를 교환함으로써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그런데 어찌 천한 일이며 무엇이 더러워서 여기에 종사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19)

이와 같이 유수환은 사민(四民)의 평등을 주장하고 보다 합리적인 신분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상공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대안은 당시의 일반적인 풍조였던 상공업을 천시하던 낡은 사상을 배격하고 자질이 있는 상공업 인력을 확보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택리지(擇里志)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은 선비의 행위규범과 그들의 참다운 선비정신을 올바르게 정의했다. 20) 그는 지적하기를 “사(士)란 타고난 계급이 아니라 어질고 덕이 있으며 벼슬을 얻게 되지만 벼슬을 못한 자는 농공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농공상은 신분으로 보아 평등하고 벼슬예비군의 경우 농공상을 본업으로 삼아 생활의 원천인 부(富)를 얻어 첫째, 가정을 이루고 둘째, 직업을 마련하며 셋째, 부모를 섬기고 넷째, 처자식을 거느리는 등 선비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18) 천관우, “반계 유형원연구,” 한국사논문선집, 제 5권 일조각, 1976, pp.1-118.

19) 유동원, 한국실학연구, 정음문화사, 1983, p. 151.

20) 이중환, 택리지, 을류문화사, 1975.

3. 허생의 꿈

연암 박지원(朴趾源)은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청나라 및 서구의 문명을 배워 개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북학파의 사상을 바탕으로 “상업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소설 허생전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외친 것이다.

허생전(許生傳)에 따르면 21) 주인공 허 생은 선비에 대한 문약과 같은 생각 및 행위와는 달리 글공부를 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그토록 천시했던 상업에 종사하면서부터 소설은 이어진다. 허생전은 하나의 꿈이요 가상의 행진곡이었다. 밤낮 책만 읽던 허 생은 행동의 세계로 뛰어든다. 장안의 부자 변씨에게 만금을 빌어 장사 밀천으로 삼아, 십만 백만의 상업이윤을 얻게 된다. 장사 길에 나선 그는 당시에 국내에서는 관행으로 삼고 있던 독점상업의 영위는 물론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거액의 재물을 축적한다는 줄거리이다.

소설은 허 생의 꿈을 담고 있다. 끝내 거부가 된 허 생은 훗날 남해의 어느 무인도에 이상향을 건설하고 문자와 사회제도를 따로 만들어 개혁의 꿈을 펼치고 잃어버린 만주의 옛 땅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소설 허생전은 실학의 선구자 토정 이지함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의 덕행을 그려낸 것이라고 한다. 시대를 앞서 살았던 토정 이지함은 흔히 토정비결을 쓴 바로 그 장본인으로 알고 있으나 그는 오히려 상인, 아니 기업가의 대부(代父)로 추앙받을 만 한 덕행을 한 선비였다고 전한다. 토정은 일찍이 나라의 경제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상공업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인가 만들어서, 파는 일이 생산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는 외국상선 한두 척과 무역을 하면 전라도 땅의 빈민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는 허생전이 그리고 있듯이 상업을 경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덕행을 하여 훗날 벼슬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업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앞선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그와 같은 정책대안을 조정에 상소까지 했다고 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실학과 박지원은 소설 허생전을 통해 “당시에 농공상이 정채되고 실업자가 많았던 것은 우리가 실학을 갖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상업적 이윤이 보다 유용한 생활수단이 되며 나아가서 나라를 보다 부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사상을 펼친 것이다.

소설 허생전은 우리에게 상도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안의 큰 부자 변씨를 찾은 허 생은 말하였다.

“내 집이 가난해서 조그만 장사를 해볼까 하오니, 돈 만량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자

“그러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부자 변 씨는 허 생의 성명도 거주지도 묻지 않고 선뜻 거액을 내 주자 주위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물

었다. 그러자 변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반드시 얼굴빛은 부끄럽고 비겁하며, 말을 거둡함이 일쑤이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옷과 신은 남루하고 떨어졌으나 말이 간단하고 눈가짐이 오만하고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음을 보아서 그는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만족함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박지원은 "신용이 이윤을 낳는다."는 생각에서 신용이야말로 상업의 값진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허 생의 꿈을 소설 형태로 아름답게 그려 오늘에 남긴 것이다.

어떻든 허 생의 실사구시로 향한 꿈은 1800년 6월 그 어느 날 개혁과 개방 등 실사구시의 혁명을 위해 왕권강화를 추구했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만 마감되고 말았다. 오히려 그 후 100여 년간 지속된 세도정치로 말미암은 경제의 폐해와 수구 및 폐쇄된 경제체제의 유지에 따른 개혁 및 근대화의 지체 등을 낳았던 것이다.

21) 박지원, 허생전(이민수 역주), 범우사, 1991, pp. 37-68.

3. 리엔지니어링 사례

1993년에 내놓은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 관한 저술과 그 파장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해머는 그가 제기한 키워드, 리엔지니어링의 의미를 두고 "경영성과에 있어서 극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fundamental rethinking) 혁명적으로 다시 설계하는(redesign) 일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기업혁신, 그 리엔지니어링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한 행위규범 속에서도 그 사례를 엿볼 수 있다. 해마다 설날 아침이 되면, 토정비결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세시풍속이 지난 500여 년 동안 줄곧 이어져 왔다. 그러나 토정 이지함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인의 대부로 칭송을 받고, 또 벼슬길에 나아가 리엔지니어링의 선비정신을 구현했던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떻든 토정이 봉직했던 포천 현감 시절의 이야기는 벤치마킹 할만 하다. 22) 포천 땅이 워낙 척박한데다가 긴 가뭄으로 고을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현감 이지함은 급히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유희상태에 놓여 있는 서해의 무인도를 골라 포천 주민들을 임시 이주시켜 논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가꾸게 하고 어업을 권장하면서 어려운 포천경제를 안정시키고 잉여가 생기면 나라에도 세금을 내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참신한 토정의 정책건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받아드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마 관례가 없다," "규정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외면했으리라.

국경 없는 투자와 생산 및 소비행위가 일반화된 오늘날,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대거 해외에 진출하고 여러 나라에 한국인 전용 공업단지를 조차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혜로운 선비 토정의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가 이처럼 뒤늦게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지함의 지혜는 홍콩과 마카오 등 서구 열강들이 해외에 경제 진출을 한 역사적 흔적보다 3-4 세기나 앞선 시대에 드러난 사례이다.

중국의 철인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 물론 그리 쉽지는 않으나 그 승리를 지키는 일 즉, 수성(守城)이 더욱 어렵다고 했다. 이율곡도 그의 성학집요(聖學輯要)라는 책에서 “창업과 수성, 그리고 경장(更張-다시 펴는)등은 시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정책이나 전략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했던 것이다. 이 이는 그가 벼슬을 하던 그 시대에 “창업은 나라를 일으키듯 천리(天理)와 인사에 두루 합해야 하고, 수성은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키는 것이며, 경장은 과거에 잘 못된 폐단을 개혁하여 중흥을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은 바로 경장해야 하는 때이다.” 23)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들은 다 같이 혁신(즉, 경장)의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경영 기법 및 그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또 토정과 이이의 지혜와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2) 이전문, 조선의 상공인 열전, 조선일보사, 1989, pp.

23) 이종호, 전계서, pp. 222-223.

V. 선비정신과 CEO의 윤리경영

1. 선비의 명분론

우리는 흔히 명분이나 실리냐를 두고 그 가치의 크기를 논의하곤 한다. 그런데 선비들이 실리보다는 명분에 우선권을 두어 왔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명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인가? 명분의 사전적 의미는 “명목 또는 신분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분수,” 아마도 이 정도쯤으로 생각해 두는 것이 우선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물에 빠져도 개해엄치지 않는다.” 혹은 “얼어 죽어도 겨불은 썩지 않는다.” 등의 속담이 있다. 이는 선비의 행위규범, 그들이 삶 속에서 명분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잘 말해 주는 속담이다.

우리 역사는 아름답다. 그것은 많은 선비들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기록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옥자 교수는 그녀의 저술 “우리선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24) “조선 왕조는 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는 장수 국가로서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이다. 그 장수의 요인에 “성리학적 명분 사회”가 있다. 패도(覇道) 즉, 힘에 의한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왕도(王道) 즉, 명분과 의리를 밝혀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법치보다는 덕치를 우선하는 성리학적 통치철학이 조선 왕조를 500년 이상 지속시킨 힘인 것이다.” 그리고 명분주의의 참 뜻에 대하여는, “이것이 나나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 이득이 되느냐 안 맞느냐 해로우냐가 현대적 판단기준이라면, 이것이 명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조선시대 사람들의 판단기준이었다. 명분을 잃느냐 얻느냐에 그 지식인의 사활이 달려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가치 덕목을 하나같이 평가 절하하는 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명분은 핑계로, 의리를 깡패용어로, 선비의 기개를 뜻하는 사기(士氣)는 군대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유효수요이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소비가 미덕이 되고 청빈이 낡아빠진 구시대의 덕목으로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결과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역사는 분명 아름답다. 그것은 많은 선비들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렸던 기록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명분에 살다가 간 선비들은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1500년대에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학파의 두 거봉으로 추앙받고 있는 남영 조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명분을 잘 지킨 선비의 한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 때 그 시절 명종이 벼슬을 내렸으나 그 벼슬을 마다하고 오히려 임금과 조정을 질타하는 쓴 소리를 담은 사직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이 경악할 만하여 그만 조정을 진동시켰다고 기록되고 있다. 25)

“ --나라의 근본은 없어졌고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큰 고목이 백 년 동안 벌레에 먹혀서 그 진이 다 말라버렸으니 언제 폭풍우를 만나 쓰러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낮은 벼슬아치는 아랫자리에서 술과 여색에 빠져 있고 높은 벼슬아치는 윗자리에서 빈둥거리며 뇌물을 받아 재물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썩어 배가 아픈 것처럼 온 나라 형세가 안으로 썩을 대로 썩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 대비(문정왕후)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아직 어리시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합니다. 백 가지 천 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 임금으로서 원칙을 세우십시오. 임금에게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소를 읽은 명종은 대비를 깊은 궁중의 한 과부라고 욕한 것에 무척 노하였으나 그를 산림처사(山林處士)로 대우하여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24) 정옥자, 전계서, p. 12.

25) 상계서, pp. 127-128.

2. 어느 선비의 죽음

누구든 남한산성의 수어장대에 오르면 어느 한 관료를 기리는 초라한 낡은 사당을 보면서 눈물겹도록 값진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남한산성을 축성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17세기 중엽 인조 2년에 조정 국가안보를 위해 산성을 서둘러 축성해야만 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성곽을 쌓는 일을 분담시켜 벽암스님에게 서북 성벽의 축성을 맡기고 이 회(李晦)라는 어느 관료에게 동남 성벽의 축성을 맡겼던 것이다. 그 두 분 중 벽암스님은 많은 축성의 경험과 건설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보다 빠른 공정(즉, 공기의 단축)으로 많은 부분의 성벽을 완공하고 예산도 남겨 국고에 반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동남 성벽의 축성을 맡았던 이 회는 보다 견고한 성곽을 만들기 위해 석축과 돌 사이에 기름을 부어 넣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실제에도 험한 지세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자꾸 늦어지기만 했다고 한다. 이 회는 그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에게 구걸까지 시켜 추가 공사비를 조달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드려 보다 견고한 성을 쌓았으나 끝내 예산을 몽땅 소모하고 또 공정마저 늦추고 말았다.

그 후 정부는 그 관료에게 예산의 낭비와 느린 공정을 질타하고 문책을 했으며 나아가서 공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는 죄명으로 그를 참형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남편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내 송 씨는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공사비 조달을 위해 구걸에 나섰던 그의 후처 또한 뒤 늦게 이와 같은 슬픈 소식을

듣고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한다.

물론 벽암스님이 공기를 단축하여 축성했던 서북 성벽은 얼마 후 붕괴되어 대 수리를 필요로 했으나 이 회가 말았던 동남 성벽은 매우 견고하여 오늘날 까지도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어느 때 정부는 이 회의 나라 사랑과 역사에 남는 참된 관료의 행위를 기리기 위해 작은 사당을 세우고 후세 사람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어느 선비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가 기업가의 윤리적 행위의 덕목을 논의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듯 하다. 우리는 늘 "이윤과 기업윤리 사이에는 모순(trade-off)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곤 한다.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시장경쟁의 상황 속에서, 어느 기업이든 윤리적 기업 활동만으로 극대의 이윤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안이한 허상의 생각을 하기 쉽다. 그동안 독과점과 과장된 광고,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널리 일반화된, 그러나 때로는 관행이라고 눈감아주었던 부도덕한 거래행위 없이는 높은 기업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행위의 윤리적 규범은 무엇일까? 법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갖는 데 비하여 도덕은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윤리는 해야만 하는 기업가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윤리적 규범 또한 기업윤리 그 자체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들 기업의 윤리적 행위기준은 기업조직을 위한 올바른 경영목표와 선택 및 그 목표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 및 어떤 정책의 수행에 있다고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VI. 맺는말

앞에서 우리는 “선비는 죽음 앞에 선 뒤에야 비로소 그가 군자임을 알 수 있다.”고 했으며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선비의 참모습과 그들 선비정신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허균 또한 선비를 두고 “군자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채워 뒷사람에게 만기는 데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새삼 선비형 CEO의 행위가 갖는 미덕쯤을 한번 논의해봄 직하다고 본다.

그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첫째, 오늘날 많은 기업의 CEO들은 명분우선의 의사결정 및 그 행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단순한 생계추구와 공동체의식이 팽배했던 봉건제 사회와는 달리 이윤추구와 개인주의적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명분보다는 실리중시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기심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1960-70년대와 같이 개발의 연대에 많은 개도국들이 그러하였듯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이루어진 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달러벌이 때문에 전통의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우리의 많은 기업들도 지나친 실리추구의 기업가 행위 때문에 그만 노사분규나 환경파괴 및 부당이익 축, 무자료 거래 등 비윤리적 기업경영으로 경영성과의 지속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많았다.

이제 우리의 기업들은 그동안 등한시 했던 명분을 보다 중시하거나 실리적 명분을 지향하는 기업가의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 많은 기업의 CEO들은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위규범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경영은 그 어원은 마누스(manus, 즉 hand)의 의미와 같이, 사람을 잘 다루는 솜씨임에 틀림이 없다. 한 때 Taylor형의 과학적 경영기법처럼 노동자들을 어떤 기계나 그 부속품으로 보고 경영자의 두뇌와 그 힘의 작용으로 기업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경영기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기업의 적자는 사회악이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말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기업은 결코 자선 후생 단체가 아니다. 이익을 올리지 않으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기업은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한 제공이며 고용과 소득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재원을 이루는 납세의 세원조성을 하는데 그 존립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노사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확립이 없이는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해 왔다. 많은 사람들의 반기업 정서도 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간디와 같은 아니 선비와 같은 인

간형의 CEO를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오늘날 바람직한 CEO 모습은 여전히 혁신적 경영을 하는 데 있다. 이 이는 그의 성학집요에서 “창업과 수성, 그리고 경장 등은 시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정책이나 전략이 판이 하게 다르다고 했지 않았는가!

1991년 봄에 필자는 “기업은 혁신이다”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내놓아 베스트셀러가 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후 1993년에 출판된 마이클 해머의 기업혁신론(Reengineering the Corporation)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6 독일 월트컵에 내보내는 대표팀을 선발할 때 수비수 한명을 뽑기 위해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향한(공격) 선수보다는 뒤에서 버티는(수비) 선수가 필요했다고 하지 않은가! 우리 기업들은 더욱 새롭게(to renew), 혹은 다시 시작하는(to begin again), 그리고 새 출발하는(to start fresh) 등 혁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e-비즈니스 시대, 우리는 지금 출구를 알 수 없는 전략적 전환점에서 있으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영기획과 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새삼 “기업은 혁신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넷째, 오늘날 바람직한 CEO모습은 윤리경영을 지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 최근에도 몇몇 대기업의 정경유착의 작태나 노조간부의 인사비리, 그리고 과도한 독과점 행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 경영타성 등 비윤리적 경영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성장 혹은 상장기업)에 비하여, 많은 중소기업(침체, 사양, 비 상장기업) 혹은 자영업적 영세기업 등은 물론 경영위기가 그 요인이겠지만 아직도 윤리경영과 거리가 먼,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없는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윤리경영의 전략적 과제는 그 어느 것 보다도 먼저 윤리경영 그 전략 자체의 마련보다는 경영성과를 올리는 데 최우선을 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과제로서는 어느 기업이든 윤리경영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쟁의 전략과 연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전방위의 시장경쟁적 전략은 시장의 지위 향상과 높은 경영성과, 그리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의 윤리적 규범의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저 비용의 전략을 마련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저 비용의 윤리경영 전략은 그 기업의 시장지위 향상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승제, *다산을 찾아서*, 중앙일보사, 1995.
- 김병하, *한국경제사상사*, 일조각, 1977.
- 김용덕, *조선후기사상연구*, 을류문화사, 1977.
- 김인걸, *실학과 근대의식*, 한국사 특강, 서울대 출판부, 1990.
- 남만성 역, *정약용, 목민심서*, 삼중당, 1993.
- 박지원, *허생전*(이민수 역주), 범우사, 1991.
- 박지원, *양반전*(이민구 역주), 범우사, 1991.
- 설봉식, *비즈니스 지능-기업혁신의 새로운 전략*, 도서출판 두남, 2002.
- _____, "유통사상에 관한 실학적 접근," *한국경제의 역사적 기반과 경영이념*, 학문사, 1995.
- 손인수,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도서출판 다문, 1996.
- 유동원, *한국실학연구*, 정음문화사, 1983, p. 151.
- 유홍준, *완당평전(I-II)*, 학고재, 2002.
- 윤동환, *다산 정약용, 사단법인 다산기념사업회*, 2002.
- 이윤희, *퇴계선생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지영사, 2001.
- 이종호, *율곡-인간과 사상*, 지식산업사, 1994.
- 이중환, *택리지*, 을류문화사, 1975.
-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연구*, 박영사, 1989.
- 이전문, *조선의 상공인 열전*, 조선일보사, 1989.
- 정순목 편저, *퇴계정전*, 지식산업사, 1991.
- 정광호, *선비-소신과 처신의 삶*, 놀와, 2003.
- 천관우, "반계 유형원연구," *한국사논문선집*, 제 5권 일조각, 1976.
- Casson, Mark, *The Theory of the Firms*,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1996.
- De Mente, *Samurai, Strategies*, Tuttle Publishing, 2005.
- Khoo Kheng-Hor, *Sun Tzu & Management*, Pelanduk, Publications, 1992.
- O'Neil, Willam J., *Business Leaders & Success*, McGraw-Hill, 2004.